



코스피
2021.73
(+1.04)



코스닥
627.21
(+5.37)



국고채
1.23
(+0.02)



환율
1196.60
(-0.20)



광주 경매시장 숨 고르기

낙찰가를 하락... 평균응찰자 수 전국 2위
전남도 감소 '안정세' ... 낙찰가율은 평균

지지옥션, 9월 지지 경매 동향

지난달 광주지역 경매 시장의 열기는 주춤한 반면 전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2019년 9월 지지 경매 동향'에 따르면 8월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던 광주지역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각각 42.3%, 66.5%로 전월 대비 6.2%포인트, 14.3%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평균응찰자 수는 5.7명을 기록해 전국 2위를 나타냈다.

주거시설 낙찰률은 전월 대비 3.8%포인트 오른 52.1%를 기록했으며, 낙찰가율은 83.1%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 8월 50%에 근접했던 업무상업시설의 낙찰률은 21.1%로 급락했고 낙찰가율도 61.8%로 7월(100%)과 8월(75.6%)에 비해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전월 전국 1위를 기록했던 토지 낙찰가율은 이달에도 154.2%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전국 1위 자리를 지켰다.

광주지역 주요 경매물건으로는 북구 양산동 소재 공장지 32억여원에 낙찰되면서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2위는 서구 금호동 소재 상용여가 아파트로 8

억원에 낙찰됐고, 서구 풍암동 소재 SK뷰 아파트는 7억9,000만원에 낙찰돼 3위에 올랐다.

또 서구 화정동 소재 라인동산 아파트에는 21명의 응찰자가 몰려 광주 지역 최대 응찰자 몰리에 올랐다. 남구 주월동 소재 대지는 16명이 입찰 경쟁을 벌여 무려 331%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또 광산구 운남동 소재 운남주공 아파트에도 16명이 입찰서를 제출해 공동 2위에 올랐다.

전남지역 경매 시장은 광주와 다소 다른 안정세를 유지하며 대조를 보였다.

지난 8월 전국 최고 낙찰률을 기록했던 전남은 이달 들어 낙찰률이 5.4%포인트 감소했지만 대전과 대구에 이어 전국 3위를 유지하고 있다. 낙찰가율은 2.8%p 오른 67.7%로 전국 평균에 근접했다.

주거시설 낙찰률(53.8%)은 전월 대비 25.8%포인트 급락했지만, 낙찰가율은 83.3%로 80% 선을 유지했다.

이는 7월 전국 최하위권으로 내려앉았던 낙찰률(22%)을 8월 들어 단숨에 79.6%까지 끌어 올렸던 것에 대한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상업시설 낙찰률(16.7%)은 전월 대비 6.1%포인트 올랐지만 전국 최

◇2019년 9월 광주 낙찰가, 응찰자 수 Top 3

구분	소재지	용도	감정가 (단위:천원)	낙찰가 (단위:천원)	낙찰가율	응찰자 수
낙찰가	북구 양산동 402-1	공장	3,854,878	3,166,848	82%	2
	서구 금호동 931 상용여가만호마을 102동 703호	아파트	835,000	801,699	96%	15
	서구 풍암동 777 SK뷰 104동 304호	아파트	820,000	790,000	96%	3
응찰자 수	서구 화정동 930-1 라인동산 108동 807호	아파트	183,000	205,000	112%	21
	남구 주월동 1065-2	대지	49,266	163,000	331%	16
	광산구 운남동 776-1 운남주공2단지 210동 1302호	아파트	94,000	92,460	98%	16

◇2019년 9월 전남 낙찰가, 응찰자 수 Top 3

구분	소재지	용도	감정가 (단위:천원)	낙찰가 (단위:천원)	낙찰가율	응찰자 수
낙찰가	광양시 광양읍 덕레리 1665-17	병원	5,011,798	2,960,000	59%	2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565-5 삼서면 대곡리 559-2	병원	4,851,798	2,600,000	54%	4
	장성군 북이면 오월리 605-2 주1	공장	2,925,080	1,749,045	60%	1
응찰자 수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752	대지	4,198	12,020	286%	36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657-3	전	11,907	65,515	550%	29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383-3	답	15,775	56,120	356%	25

* 대상: 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자료: 지지옥션)

하위권을 벗어나지는 못했고, 토지 낙찰률은 8.4%포인트 오른 50.7%로 집계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주요 경매물건으로는 광양시 광양읍 덕레리 소재 병원이 29억 6,000만원에 낙찰되면서 전남 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2위도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소재 병원으로 26억원에 낙찰됐다. 또 장성군 북이면 오월리 공

장이 18억원에 낙찰돼 3위에 올랐다.

또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소재 대지에 36명이 몰려 전남 지역 최대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2위는 29명이 입찰 경쟁을 벌여 낙찰가율 550%를 기록한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소재 전이 차지했고,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소재 답에 25명이 입찰서를 제출해 3위에 올랐다. /서미애 기자

봉선동 아파트 가격 2년 새 급등락

포스코더샵 84㎡, 1년만에 2억원 ↓

'광주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남구 봉선동 아파트 가격이 2년 새 급등락했다. 봉선동의 대표적인 아파트인 포스코더샵 84㎡는 1년 만에 3억원이 올랐다가 다시 1년 만에 2억원이 떨어졌다.

7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더샵 84㎡는 2017년 9월 4억1,000만~4억2,700만원에 거래됐던 것이 2018년 9월 6억7,500만~7억3,700만원까지 올랐다. 1년 만에 최고 3억2,700만원이 급등했다. 하지만 올해 7~9월 5억2,000만~5억8,000만원으로 급락했다. 1년 만에 가장 많은 2억1,700만원이 빠진 셈이다.

상용스윗닷홈 155㎡는 2017년 9~10월 8억6,000만~8억7,500만원에 거래됐던 것이 2018년 10월 13억~14억6,0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1년 만에 최고 6억원 가량이 올랐다. 하지만 올해 7월 12억 5,000만원으로 다시 1년 만에 2억원 이상 떨어졌다.

아파트 거래량은 포스코더샵 84㎡는 2017년 43건, 2018년 19건, 올해 들어 9월까지 7건으로 줄었다.

상용스윗닷홈 155㎡는 2017년 11건, 2018년 5건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봉선동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남구 모 공인중개사는 "광주에서 부자 동네라는 상징성이 있는 봉선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고 여전히 명문 학원이 많아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큰 학부모들이 이곳을 선호하고 있다"며 "요즘은 아파트 거래는 드물지만 1년 새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반등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남구 공인중개사는 "최근 들어 학군과 학원 등 봉선동의 교육 환경과 주거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서 '광주의 대치동'이라는 말도 옛말이다"며 "광주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많아서 15~20년 가장 된 봉선동 아파트에 대한 매리트가 거의 없어 가격은 더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미애 기자

광주·전남 9월 주식거래량 감소

국내외 불확실한 정치·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전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9월 중, 광주전남지역 투자자의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합친 주식 거래량은 지난 8월보다 3,895만 주, 9.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9월 주식 거래대금

은 1,784억 원으로 전월보다 8.1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의 9월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대비 1.49%로 지난 8월보다 0.04%p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은 21조7,939억원, 1억9,705억원으로 전월 대비 2.05%, 1.51% 각각 증가했다. /서미애 기자



광주상공회의소는 7일 지역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컨설턴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광주상의 제공

광주상의, NCS 기업활용 컨설팅 보고회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7일 지역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컨설턴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에서 주관

하고 광주상공회의소 등 전국 30여 기관에서 수행해 전국 700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추진된 사업에 대한 운영 결과를 비롯해 참여기업별 컨설팅 성

과와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NCS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광주상의는 올해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여 기업별 직무분석 및 NCS에 기반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채용 프로세스와 채용도구를 개발하고 제공해 능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적자원 확보 및 운용기반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미애 기자

광주 어음 부도율 2.2% 전국 1위

전국 0.13% 크게 상회... 지역총생산도 최하위

광주지역 어음부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시·도별 어음부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가 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는 지난 3년간 평균에서도 0.99%를 기록, 전국 평균 어음부도율은 0.13%를 크게 상회했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해 특정기업의 어음에 문제가 생기면서 2.2%의 어음부도율을 기록한 것이 광주지역 부도율 폭증에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매년 전국 평균 3~4배에 달하는 높은 부도율을 보여왔음을 감안해 볼 때 광주지역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부도율은 지역 총생산과도 연계됐다. 지난 2017년 광주 지역 총생산은 37조 7,000억원으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인구수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 40조 5,000억원임을 비교해 볼 때 광주지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역의 어음부도율은 곧 그 곳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광주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의 4~5배 이상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서미애 기자

금타 '굿 디자인' 수상

금호타이어 제품이 2019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 2019)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올해 62주년을 맞은 '굿 디자인 어워드'는 제품의 디자인, 사용성, 혁신성 등을 종합평가해, 수상작에 'G-Mark'를 부여한다.

제품, 공간, 미디어, 시스템, 솔루션 등 5가지 카테고리의 심사를 거쳐 승용차용 신제품 '마제스티(Majesty) 9 솔루션 TA91' 및 '엑스타(ECSTA) PA51'이 G-Mark를 부여받았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 전무는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엑스퍼론
정확성에 쫓히다!

엑스퍼론의 골프공은 세계최초 특허공법으로 무게중심을 잡아 똑바로 구르는 밸런스 골프공입니다.

www.xperon.co.kr Tel. 02-2070-5009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 191 동화빌딩 4층(도곡동 454-5)

엑스퍼론골프(주)
엑스퍼론골프(미국특허등록중)